

#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 상향

### 1인당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도교육청, 학원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 오늘 공포·시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책임보험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날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서실 업종 등록 시 남녀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하계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는 남녀 혼석이 일반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운영자에게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또 학원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학원에서 두 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할 경우 각각의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학원은 두 개 이상의 교습과정 운영 시 면적 기준만 갖추면 규제를 완화해 줄 예정이다.

대상자별로 구분돼 있지 않은 기존의 행정처분 기준을 학원 교습소 개입과외교습자로 세분화 해 명확한 기

준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위반사항(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및 채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고, 운영자에게는 사업 운영상 부담을 완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지난 8일 효능평가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은 양오봉 전북대 총장, 김대혁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지원 성과 '눈에 띄네'

### 전북대, 제품생산 등 380개 기업 대상 4300건 지원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센터장 김대혁·이하 미생물센터)는 지난 8일 효능평가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2017년 개소 이후 전국 380개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효능검증과 안전성평가, 대량배양과 제형공정, 산업화 분야 등 4,300여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14억5,000만원을

투입해 선도기업 육성과 제품생산 등 33개 기업체에 대해 42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지원사업으로는 산업화지원과, 효능검증, 안정성평가, 대량배양 및 제형화 지원 등이 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양오봉 총장과 김대혁 센터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 주요 인사와 농생명 산업 기업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미생물센터는 국비 사업 100억 원을

투입해 GMP(우수제조시설장비·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지원시설 공사를 했다. 올해는 200억 원을 수주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혁 미생물센터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정읍시와 공유 인프라를 구축해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거점을 만들고 집적화 및 고도화해 4차 산업혁명시대 농생명 산업을 이끄는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저탄소 환경급식 정책 참여 학교에 과일 추가 지원

### 도교육청, 학생·학부모 급식 만족도 향상·전북지역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 기여 위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저탄소 환경급식 정책 참여학교에 'K-Fruit Day'를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K-Fruit Day'사업은 기존 학교급식 식단에 국내산 과일을 추가 배식하는 것으로 푸드마일리지와 낮은 탄소배출이 적은 우리고장 로컬푸드 또는 국내산 과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 만족도

를 높이고,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에도 기여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또한 학생 체질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구 온난화 예방 등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71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등 총 106개교를 대상으

로 12월 30일까지 학생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서기 문예체전감과장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배려와 감사, 환경보호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산업디자인학과, 말레이시아 UKM 국립대 초청 합동 워크숍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는 지난 8일 말레이시아 UKM(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이하 UKM) 국립대학 청소년역량 강화지원센터 학생과 교직원 등 23명을 초청, 합동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년 지역 청소년의 기술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진영 학과장은 "전통문화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소재로 적극적인 글로벌 교류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디자인학과는 이번 학기부터 말레이시아 APU 대학과 '로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글로벌캠퍼스디자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연구실 안전주간'

### 전북대, 호남권 행사

### 연구활동 종사자 등 참여

### 안전실천 교육·체력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8일 전대학술문화관에서 2023 연구실 안전주간 '호남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체하는 연구 안전 연구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송철규 연구부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주요 관계자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노영희 본부장 및 호남지역 연구실 책임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연구활동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실 안전실천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등이 실시됐다.

식전행사로 안전문화 공모전 수상작 및 보호구 전시를 비롯해 연구실안전 VR 체험, 공모전 시상식,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심폐소생술 훈련 및 퀴즈쇼 등을 통해 연구실 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송철규 연구부총장은 "연구실 안전 관리가 부실할 경우 금전 및 인명피해는 물론, 양질의 연구성과 창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교육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학과 기관들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대학교가 세계 수준의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지식기반경영커플링 제2회 모의 면접 경진대회'

전주대학교 지역기반경영커플링사업단(단장 김효진)은 지난 8일 제2회 모의 면접 경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가 지역기반경영커플링사업 참여교수와 (주)KNP컬처 대표 및 내소 날모터스 인사 담당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이에 참여 학생들은 지원하는 기업과 각 직무에 맞춰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 모의 면접을 실시했다.

다데마 면접을 통해 20여 명의 학생이 실전 모의 면접에 참여했다. 면접 후 면접관들의 피드백을 통해 참여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여한 학생 중 면접 준비와 태도가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됐다.

김효진 단장은 "이번 모의 면접이 학생들의 실전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업 트렌드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대학교는 지난 8일 8개 대학 LINC 3.0 협의회 연합으로 개최된 'K-Tour Idea Challenge 2023'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태어난 김에 전주 여행'

### 전주대, 'K-투어 아이디어 챌린지' 서 우수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8일 8개 대학 LINC 3.0 협의회 연합으로 개최된 'K-Tour Idea Challenge 2023'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EXPO 대전컨벤션센터 열린 'K-Tour Idea Challenge 2023'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산업 및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전주대 LINC 3.0 사업단(단장 김상진)을 비롯해 관광거점 도시 기반 LINC 3.0 협의회를 구성해 가톨릭관동대, 목포대, 부산여대, 안동대,

전주대, 동국대 WISE, 울산대, 한국교통대 등 8개 대학 연합으로 주최됐다.

교내 예비 심사를 거쳐 연합체 공모전 최종 발표에 올라간 전주대 게임콘텐츠학과 박수진·하지은 학생의 '미리별' 팀이 제시한 '태어난 김에 전주 여행' 아이디어가 우수상을 받았다.

김상진 단장은 "방문하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전주의 문화관광사업과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상하는 기회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인정'

### 전북대 유동진 교수, 수소의 날 기념식서 산업부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유동진(생명과학과)교수가 수소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유공자로 선정, 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수소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해 매년 그 의미를 기념하고 있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유동진 교수는 2011년부터 수소 및 연료전지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국책사업을 다수 수주,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 에너지 관련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해 수소 및 연료전지 관련 산업체, 대학, 연구소와 지자체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더불어 전주시와 함께 RIS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술 융합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수소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 왔다.

또한 유 교수는 그간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소재인 고분자전해질용 멤브레인과 전극촉매의 국산화를 위한 다수의 연구 성과와, 그린 수소생산, 이연-공기전지 및 센서 개발을 위한 초격차 성능을 갖는 전극소재 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

최근엔 물을 전기분해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귀금속 촉매(백금)를 대체할 비귀금속 전기촉매를 개발해 저가·고효율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혁신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유동진 교수는 "근래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이상기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속출되고 있어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면서 "세계가 청정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경제사회로 하루빨리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교수는 현재 교육부 BK21 FOUR(수소에너지 융복합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 및 RIS 사업(수소연료전지 발전기술 융합인재양성사업) 단장을 맡고 있다.

/정은성 기자

##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기여

### 오늘부터 이틀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 '환경교육 학생 실천 국제교류 한마당'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0~11일 이틀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환경교육 학생 실천 국제교류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내외 환경교육 실천 사례 공유를 통해 학교 환경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첫날은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생태교육과 문화교류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국제교류 활동 사례가 발표된다. 또한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 성과공유 전시 부스도 운영된다.

이어 둘째 날에는 환경교육을 주제

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자연미술과 함께하는 학교환경교육', '환경도서 저자와의 대화', '팝업북 만들기 체험', '도전 골든벨' 등이 마련돼 교사·학생·학부모·일반 시민 등 누구나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환경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실제적인 실천 사례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직접 경험하면서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환경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